

9월 FOMC, 한 발 앞선 유가



Fixed Income Strategist

김찬희

☎ (02) 3772-1537

✉ chee@shinhan.com

고다영

☎ (02) 3772-2638

✉ dazero12@shinhan.com

[이슈] 9월 FOMC, 한 발 앞선 유가

다음 주 9월 FOMC와 BOJ 회의가 예정됐다. 9월 FOMC 회의 이후 시장금리는 금리 결정보다 점도표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단기간 내 고점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1~2차례 보험성 금리 인상으로 그칠지가 중요하다. 26년 말, 27년 말 점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겠다. BOJ 회의는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재료 소멸 이벤트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미 줄어든 엔 선물 순매도 포지션과 엔화 절상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엔 캐리 청산 우려는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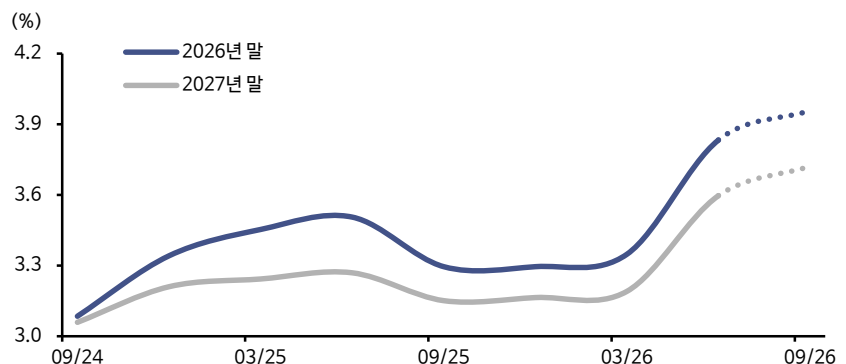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는 6~8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 10월에도 고유가가 유지될 경우 금리 인상 시점이 4분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장금리 상단을 열어둔 대응이 필요해졌다. 향후 3개월 국고채 3년 3.70~4.20%, 10년 4.20~4.70%로 밴드를 상향 조정한다.

[주간 전략] 통화정책회의 Big week

[해외] 미국 국채 약보합을 예상한다. 9월 FOMC 전후 변동성 확대를 유의해야 한다. WTI 가격이 재차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금리 추가 상승 여부는 점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종금리 힌트에 달려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 4.85~5.05% 밴드를 제시한다.

[국내] 국고채는 약보합을 예상한다. 대외 긴축 경계가 높아진 가운데 8월 금통위 의사록 발표가 예정됐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선제적 인상 대응이 부각됐던 것과 달리 연속 인상 결정의 배경인 견고한 성장, 물가 관련 논의에 시선이 집중될 것이다. 국고채 3년 3.85~4.10%, 10년 4.40~4.65% 밴드를 제시한다.

연준 점도표 가중평균값



자료: Fed, 신한투자증권

[이슈] 9월 FOMC, 한 발 앞선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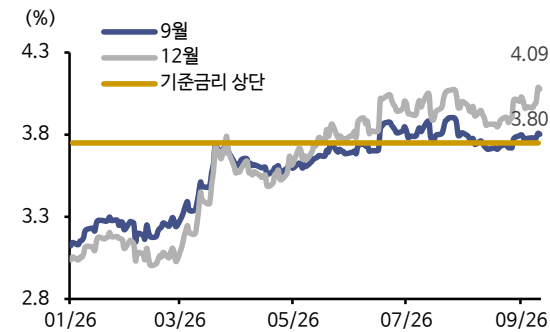
다음 주 9월 FOMC, BOJ 회의 예정

9월 FOMC 회의는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성 차별화

BOJ 금정위는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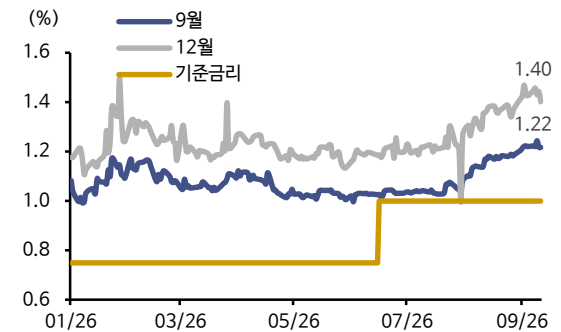
다음 주 9월 FOMC와 BOJ, BOE 회의가 예정됐다. 금융시장 불안의 중심에 있는 미국 금리와 잔존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경계가 완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9월 FOMC 회의는 기준금리 결정과 더불어 점도표가 공개돼 연준위원들의 최종금리 전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차별화될 이벤트다. BOJ 회의의 경우 이미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100% 가까이 반영되고 수정경제전망이 제시되는 회의도 아닌 만큼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BOE 회의 역시 다음 주 발표되는 8월 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 않는다면 7월에 이어 동결 가능성이 높다.

미국 9월, 12월 예상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일본 9월, 12월 예상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9월 FOMC 회의: 점도표에 좌우될 금리 방향

9월 FOMC 점도표 결과 중요

9월 FOMC 회의는 금리 인상 혹은 동결 여부보다 점도표 결과에 따라 시장금리 경로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FOMC 점도표는 26년 말까지 금리 인상(9명) vs. 동결 혹은 인하(9명)로 케빈 워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이 정확히 양분됐다. 한편 27년 말 예상 기준금리 중간값은 3.50~3.75%로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들도 내년에는 금리가 평균적으로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해 보험성 인상 가능성이 선명하게 반영돼 있었다.

6월 점도표 대비 상황 전망
금년, 내년말 중간값
12.5~25bp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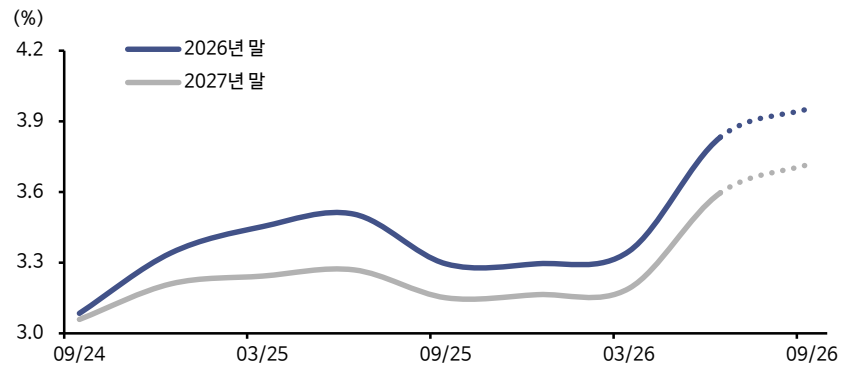
6월 이후 재차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점도표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금년(3.875~4.00%)과 내년(3.75~3.875%) 말 중간값이 12.5~25bp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번의 경우에도 금년과 내년 기준금리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점도표 전망이 제시돼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상을 재확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워시 의장 포워드 가이드
스 제공할 가능성 제한적

1~2차례 보험성 금리
인상 확실시될 시 중장기
금리 단기 고점 확인 가능

케빈 워시 의장이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 포워드 가이드를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9월 FOMC 회의 금리 결정과 점도표 결과를 종합해 시장금리가 반응 하겠다. 결국 중장기 금리가 단기간 내 고점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1~2차례 보험성 금리 인상으로 그칠지가 중요하다. 26년 말, 27년 말 점도표와 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간선거 전까지 물가 지표, 지정학적 긴장 상황 등을 확인하며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기인한 금리 상승분을 되돌리겠다.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동반될 경우 금리 고점 형성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연준 점도표 가중평균값



자료: Fed, 신한투자증권

BOJ 9월 25bp 인상 불확
실성 해소 이벤트로 작용

9월 BOJ 회의: 엔 캐리 청산 우려 제한적

일본 금리는 8월 말 다카다 위원의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과 엔화 약세 지속으로 빅스텝 가능성까지 반영했으나 이후 엔화가 절상되면서 관련 경제감은 누그러졌다. 9월 BOJ 회의는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재료 소멸 이벤트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대내외 금리 인상 전망
확실화된 국면에서 엔 캐
리 청산 리스크 제한적

BOJ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긴축적인 스탠스가 부각될 때마다 엔 캐리 청산 우려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024년 7~8월의 기억 때문인데 당시에는 BOJ의 서프라이즈성 금리 인상 이후 미국 고용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도 맞물렸다. 2024년 7월 30~31일 BOJ 회의 전 금리 인상 확률은 50% 정도 반영됐었는데, 정책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하면서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0.50%가 상단이 아니냐고 발언해 충격이 가중됐다. 현재는 이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미국도 오히려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자산배분 자금 이동은
점진적, 구조적 변화 요인

한편 일본 중장기물 금리 레벨이 충분히 상향되면서 생보사, 연기금 등 일본계 자금의 환류가 우려된다. 다만 자산배분 정책을 따르는 해당 자금들의 이동은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요인이자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으로 청산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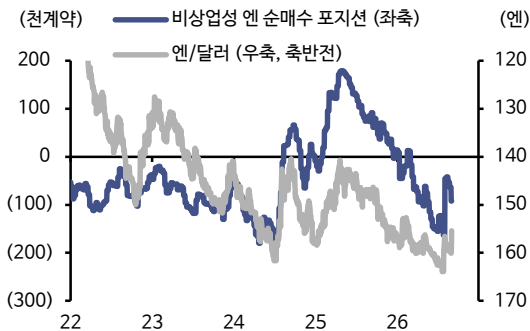
엔화 매도 포지션 청산,
개입 위한 보유 미국 국채
매도 이벤트는 소화

시장이 누적된 엔화 매도 포지션의 청산 혹은 엔화 절상 개입을 위한 보유 미국 국채 매도는 일단 소화된 상태다. 엔화 순매도 포지션은 7월 2024년 여름 이후 최대인 16.3만계약까지 늘었다가 8월 들어 10만계약 이하로 축소됐다. 8월 말 외환보유액은 1조 2,080억달러로 전월대비 796억달러 감소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외화증권 보유액은 878억달러 줄었다.

미국, 일본 긴축 압력 높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
필요성 부각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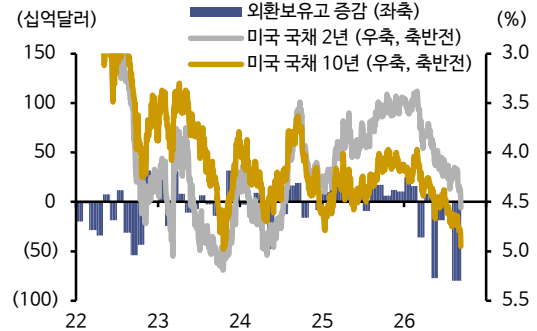
엔 매수 개입을 위한 미국 국채 매도 과정에서 금리 상승 압력이 추가로 확대됐으나 엔화 절상 효과는 명확했다. 엔/달러 환율은 7월 말 163엔에서 연초 수준인 150엔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공히 긴축 압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 과도한 개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제한될 전망이다. 금변에는 활용되지 않았으나 미국 재무부의 FIMA 계정 또한 불가피한 미국 국채 매도 압력을 완충할 장치로 자리한다.

엔화 순매수 포지션과 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일본 외환보유고 변화와 미국 국채 금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박스권 상단 돌파한 국고채 금리

국고채 금리 박스권 상단 돌파

국고채 3년과 10년 금리는 각각 4.0%, 4.5%를 웃돌며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우세했던 관망 심리는 WTI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 하면서 매도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 7월 말 이후 단기적으로 롱 플레이에 나섰던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역시 70% 이상 되돌려졌다. 외국인은 7월 말 이후 국채선물 3년을 10만계약 순매수했다가 8월 말 이후 조금씩 포지션을 줄이면서 9월 10일 5.8만계약까지 순매수 규모를 축소했다.

지정학적 충격 재차 반영

최근 약세는 표면적으로 대외 금리 연동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직접적 충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높아진 2차 파급 가능성이 건축 속도와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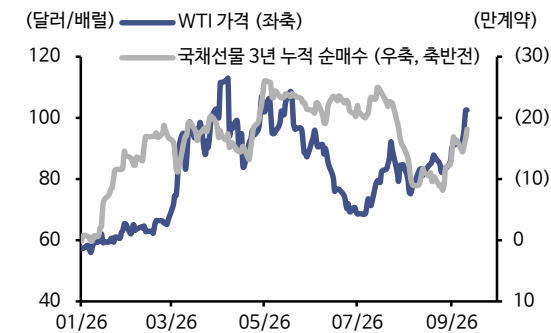
90달러 이상 고유가 유지 시 연내 4분기 금리 인상 가능

8월 금통위 리뷰와 9월 월간자료를 통해 7~8월 연속 인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 만큼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은 4분기보다 1분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9월 중 미국-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의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전제로 했다. 아직 해당 시나리오가 완전히 훼손됐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기본 시나리오는 견지한다. 다만 10월에도 9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유지될 경우 금리 인상 시점이 4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 상단 열어둔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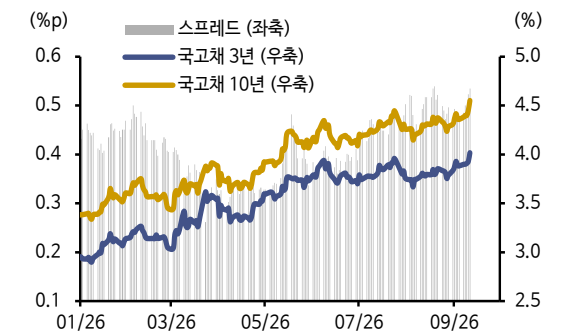
시장금리 역시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해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둔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3개월 국고채 3년 3.70~4.20%, 10년 4.20~4.70%로 밴드를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발 건축 경제가 지속될 경우 커브는 베어 플랫이 예상된다.

WTI 가격과 외국인 국채선물 3년 누적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국고채 3년, 10년 금리,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채권시장 동향]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유가 상승 연동

(해외) 9월 FOMC 인상
경계 확대, 유가 상승 연동
10~20년 바이백 한도
실망

유럽 미국 대비 긴축 경계
더욱 높아지며 금리 속도
ECB 3대 정책금리 25bp
인상

[해외] 미국 국채 2년과 10년 금리는 각각 25bp, 19.5bp 상승하며 베어 플랫 전 개됐다. 금주와 차주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 간 충돌 격화, 이란 하르그섬 폭발로 중동 리스크가 고조됐다. 9일 재무부는 10~20년 구간 바이백 한도를 60억달러로 확대했으나 시장에서는 100억달러까지도 보고 있던 까닭에 장기물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이 가중됐다. 8월 PPI에서 PCE 가격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항공료, 트럭 운송료가 급등한 가운데 실제 바이백 규모 60억달러 하회, 중동발 리스크 추가 확대에 금리가 급등했다.

유럽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긴축 경계가 미국 대비 더욱 높아지며 금리가 속등했다.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상승률(예비치)이 전년동월대비 3.3%를 기록한 상황에서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Dutch TTF 선물가격이 주간 10% 넘게 급등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재무장관이 재정 신뢰도 회복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42.5억파운드 규모 30년물 발행 건(5.82%)에서 발행액의 20배가 넘는 수요가 몰리며 길트채 금리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3대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고 7월 대비 매파적 기조가 강화됐다.

(국내) 대외 금리 오름세
연동

2Q GDP 잠정치 제한적
영향

[국내] 국고채 3년과 10년 금리는 각각 4.5bp, 8.8bp 상승했다.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하 중동발 유가 상승에 따른 대외 금리 오름세에 연동됐다. 2분기 GDP 잠정치는 전분기대비 +0.6%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명목 GDP는 전분기대비 9.2%로 197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GDI는 전분기대비 3.7%로 0.1%p 상향됐으나(YoY 15.6% → 15.7%) 시장 영향력은 제한됐다.

[주간 전략] 통화정책회의의 Big week

(해외) 미국 국채 10년
4.85~5.05%

[해외] 미국 국채 약보합을 예상한다. 다만 9월 FOMC 회의 전후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WTI 가격이 재차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는 점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종금리 힌트에 달려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 4.85~5.05% 밴드를 제시한다.

(국내)
국고채 3년
3.85~4.10%
국고채 10년
4.40~4.65%

[국내] 국고채는 약보합을 예상한다. 대외 긴축 경계가 잔존한 가운데 재차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대내 긴축 경계까지 자극한다. 대내 이벤트로 8월 금통위 의사록 발표가 예정됐다. 회의 당시 기자회견에서 선제적 인상 대응이 부각됐던 것과 달리 연속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자리한 견고한 성장, 물가 관련 논의에 시선이 집중되겠다. 국고채 3년 3.85~4.10%, 10년 4.40~4.65% 밴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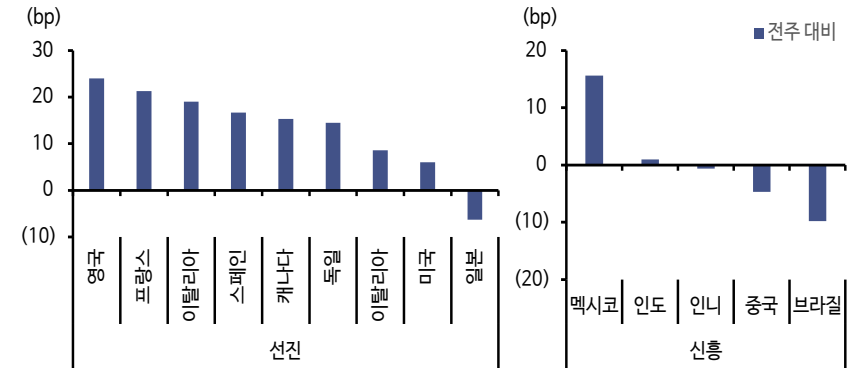
주간 금리 예상

금리 및 스프레드 (% , bp)	9월 10일	예상 범위
국고채 3년	3.93	3.85~4.10
국고채 10년	4.46	4.40~4.65
국고채 10년-3년	52.8	47~55
미국 국채 10년	4.96	4.85~5.05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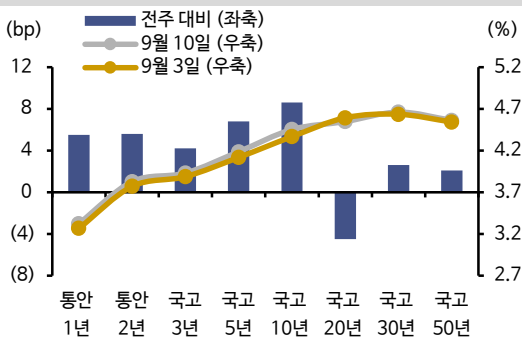
Weekly Chart

주요국 국채 10년 금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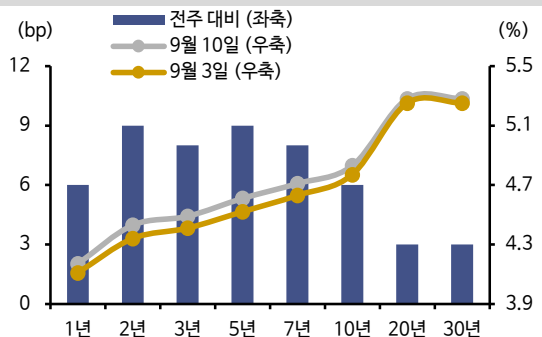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국고채 수익률 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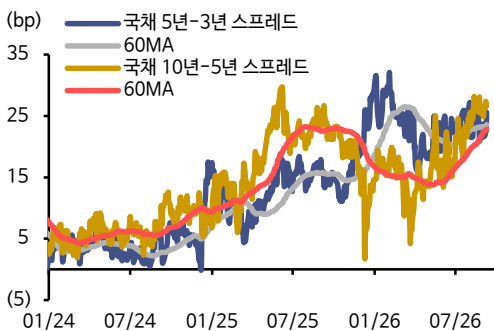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미국 국채 수익률 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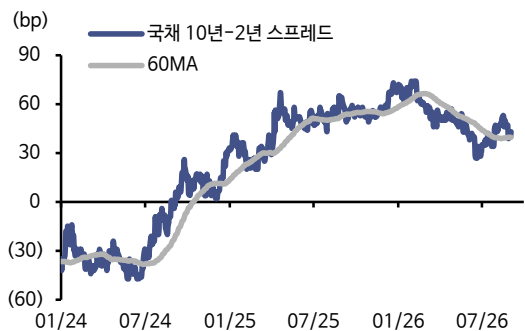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국고채 10년-5년, 5년-3년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미국 국채 10년-2년 스프레드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주간 주요 일정

주간 주요 일정					
날짜	국가	기간	이벤트	예상치	이전치
9월 14일	일본	7월	산업생산 (MoM)	--	0.1%
9월 15일	한국	8월	수입물가 (YoY)	--	18.7%
	중국	8월	소매판매 (YoY)	0.8%	0.6%
		8월	산업생산 (YoY)	4.8%	4.5%
		8월	고정자산투자 (YTD YoY)	(7.2%)	(6.7%)
9월 16일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MoM)	(5.2%)	9.7%
	유로존	7월	산업생산 (MoM)	--	0.0%
	미국	8월	소매판매 (MoM)	0.8%	(0.6%)
9월 17일	미국	9월	FOMC 통화정책회의 (정책금리)	3.50~3.75%	3.50~3.75%
	영국	9월	BOE 통화정책회의 (정책금리)	3.75%	3.75%
9월 18일	한국	8월	생산자물가 (YoY)	--	7.7%
	일본	8월	소비자물가 (YoY)	1.9%	1.8%
	일본	9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정책금리)	1.25%	1.00%
	미국	8월	산업생산 (MoM)	0.3%	0.2%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및 국고채 발행 계획

	내용	일자	기물	예정액	응찰액	낙찰액	응찰률	낙찰금리
결과	통안채 입찰	9월 7일	91일	0.7조원	1.04조원	0.7조원	1.48	3.040
		9월 9일	2년	2.0조원	2.75조원	2.0조원	1.37	3.805
	국고채 입찰	9월 7일	3년	3.2조원	8.80조원	3.2조원	2.75	3.875
		9월 9일	20년	0.6조원	1.67조원	0.6조원	2.79	4.520
		9월 11일	50년	0.8조원	1.23조원	0.8조원	1.54	4.720
예정	통안채 입찰	9월 14일	91일	0.7조원	-	-	-	-
		9월 16일	3년	1.0조원	-	-	-	-
	국고채 입찰	9월 14일	10년	2.8조원	-	-	-	-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신한투자증권

미국 국채 발행 계획

	일자	기물	예정액	응찰액	낙찰액	응찰률	낙찰금리
결과	9월 9일	91일	\$92B	\$240B	\$92B	2.61	3.800
	9월 9일	3년	\$58B	\$157B	\$58B	2.72	4.474
	9월 10일	10년	\$39B	\$105B	\$39B	2.71	4.834
	9월 11일	30년	\$22B	\$57B	\$22B	2.61	5.308
예정	9월 15일	91일	\$92B	-	-	-	-
	9월 16일	20년	\$13B	-	-	-	-
	9월 18일	10년(TIPS)	\$19B	-	-	-	-

자료: US Treasury, 신한투자증권 / 주: 한국시간 기준

국내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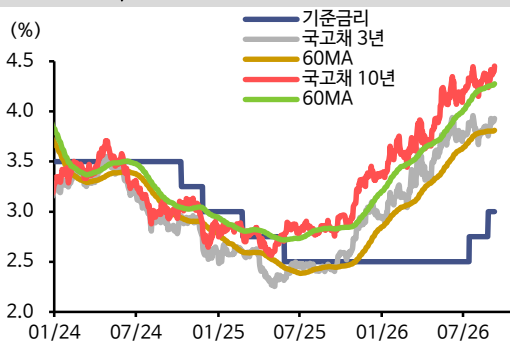
주요 채권 금리 및 변화

(%, bp)	현재	1W	2W	3W	1M	3M	YTD
통안채 3개월	3.036	2.1	15.5	22.8	24.2	36.5	63.2
통안채 1년	3.323	5.5	7.3	6.4	7.1	25.4	81.2
통안채 2년	3.827	5.6	15.8	10.1	17.7	4.0	99.3
국고채 3년	3.93	4.2	17.5	11.9	15.2	4.9	97.7
국고채 5년	4.186	6.8	21.2	12.0	19.2	11.6	94.6
국고채 10년	4.453	8.6	21.5	13.0	21.4	18.0	106.8
국고채 20년	4.548	(4.5)	8.0	(5.3)	(0.7)	18.1	119.1
국고채 30년	4.661	2.6	15.1	(1.4)	7.6	33.9	140.3

기간 및 크레딧 스프레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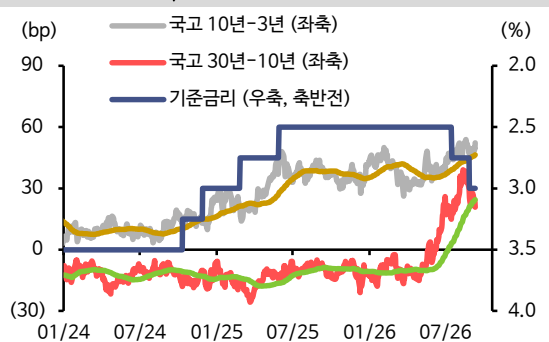
(bp)	현재	1W	2W	3W	1M	3M	YTD
통안 1년 - 통안 3개월	28.7	3.4	(8.2)	(16.4)	(17.1)	(11.1)	18.0
통안 2년 - 통안 1년	50.4	0.1	8.5	3.7	10.6	(21.4)	18.1
국고 3년 - 통안 2년	10.3	(1.4)	1.7	1.8	(2.5)	0.9	(1.6)
국고 5년 - 국고 3년	25.6	2.6	3.7	0.1	4.0	6.7	(3.1)
국고 10년 - 국고 5년	26.7	1.8	0.3	1.0	2.2	6.4	12.2
국고 20년 - 국고 10년	9.5	(13.1)	(13.5)	(18.3)	(22.1)	0.1	12.3
국고 30년 - 국고 20년	11.3	7.1	7.1	3.9	8.3	15.8	21.2
회사채 AA-3년 스프레드	66.3	(0.3)	(1.2)	(2.6)	(2.3)	6.9	15.7
회사채 BBB-3년 스프레드	647.0	(0.5)	(1.4)	(3.1)	(2.1)	6.9	13.1

국고채 3년,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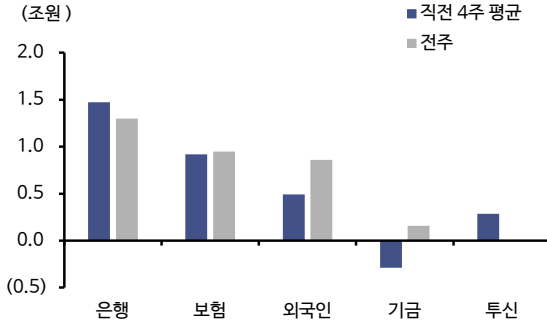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국고채 10-3년, 30-10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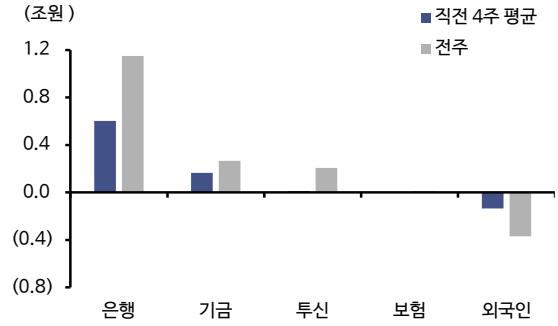


기관별 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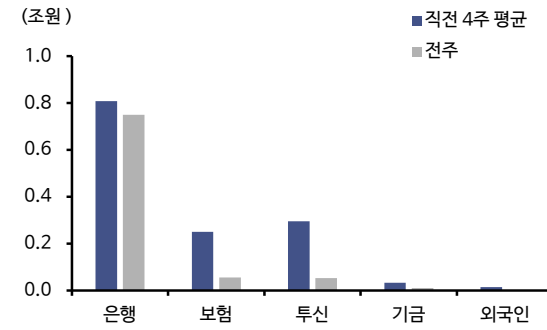
기관별 국채 주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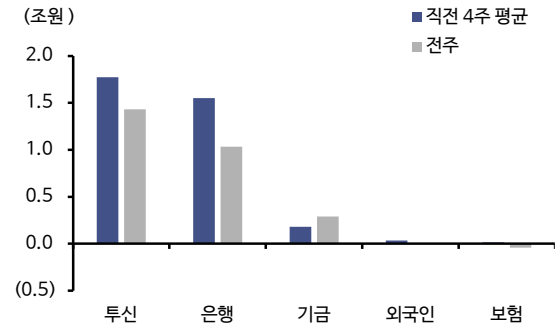
기관별 통안채 주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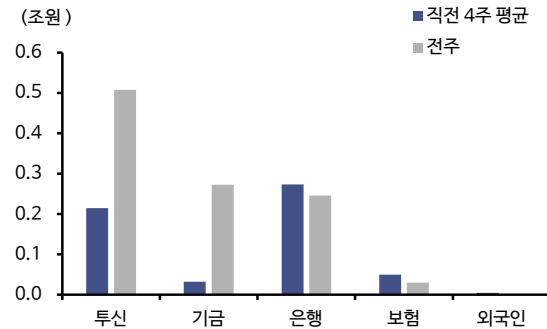
기관별 공사공단채 주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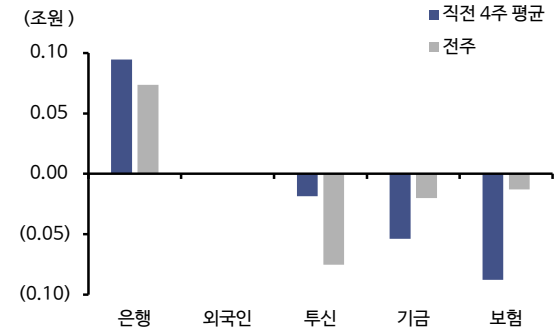
기관별 은행채 주간 순매수



기관별 여전채 주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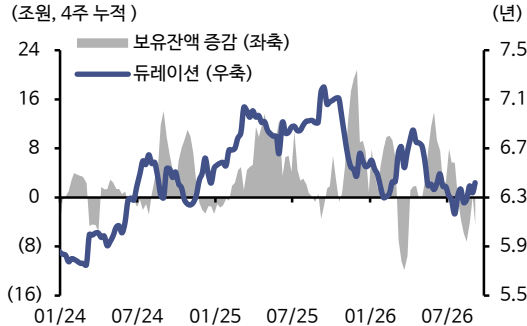
기관별 회사채 주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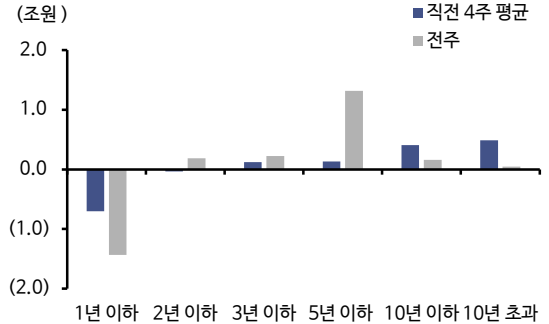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채권 잔액 및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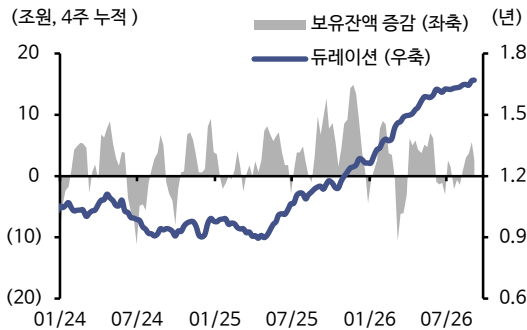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 증감 및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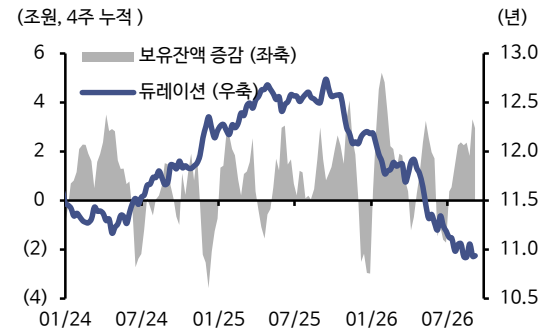
외국인 만기별 채권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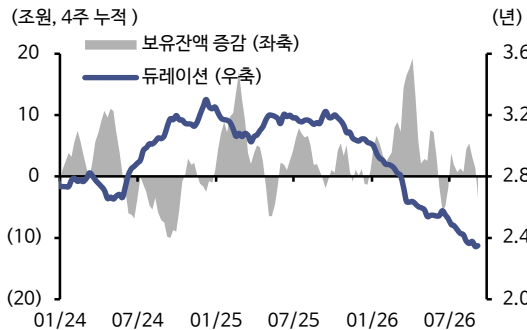
은행 채권 보유 잔액 증감 및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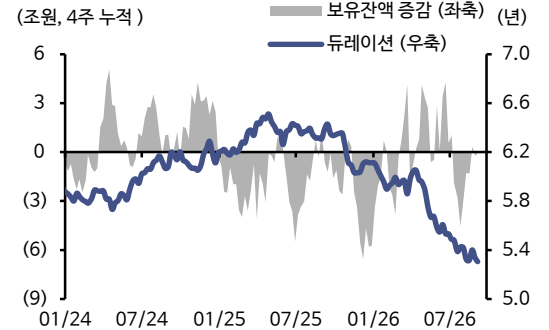
보험 채권 보유 잔액 증감 및 듀레이션



투신 채권 보유 잔액 증감 및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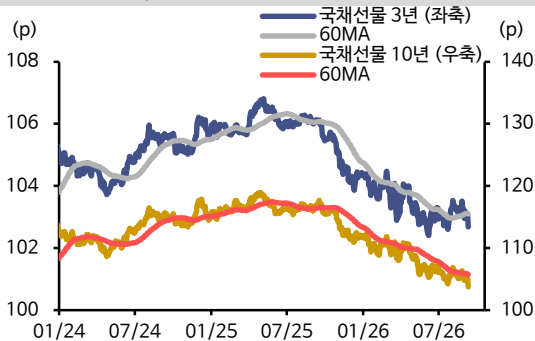
기금 채권 보유 잔액 증감 및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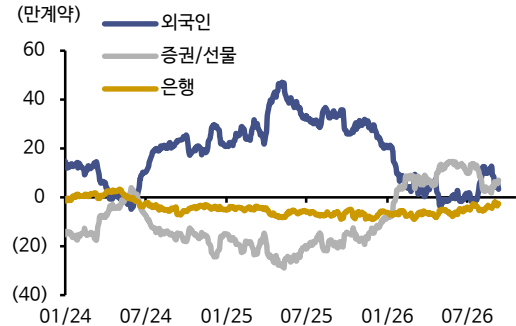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선물 및 스왑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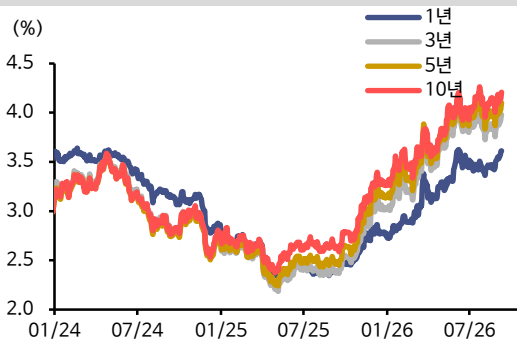
국채선물 3년, 10년 (수정연결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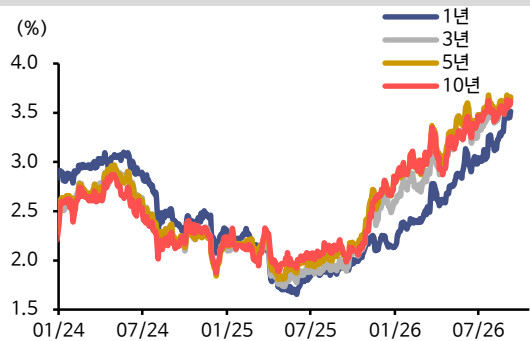
주요 기관별 국채선물 3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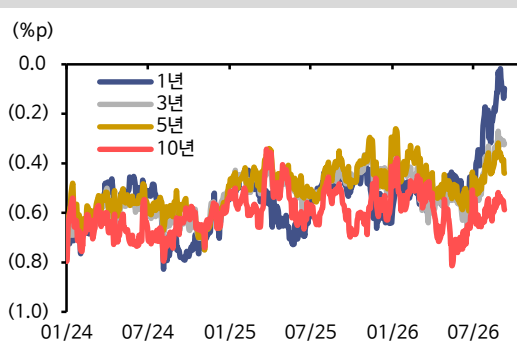
IRS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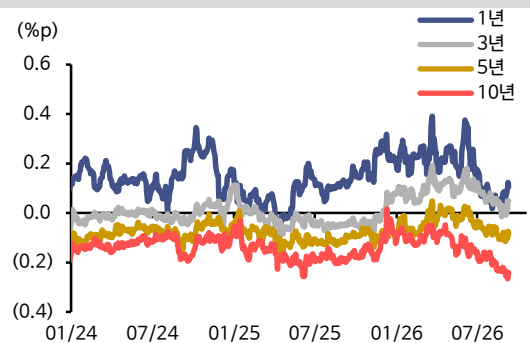
CRS 금리



스왑 베이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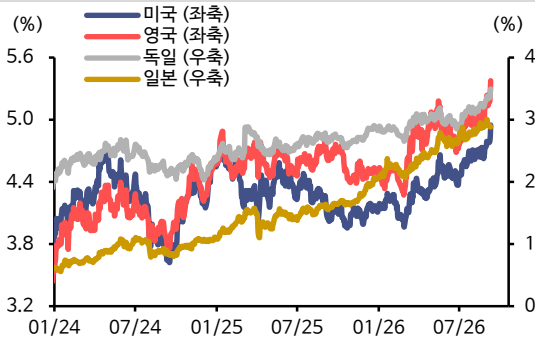
스왑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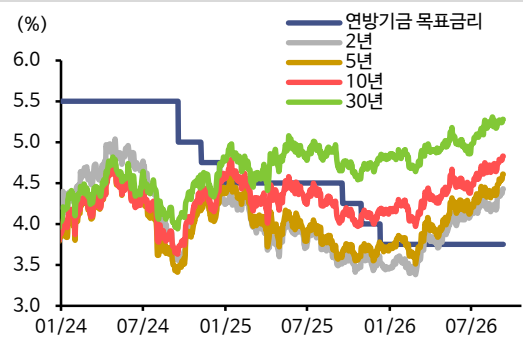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해외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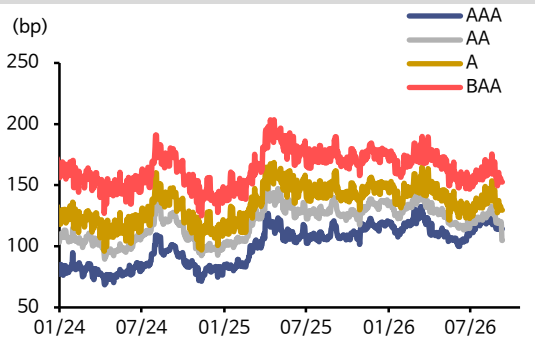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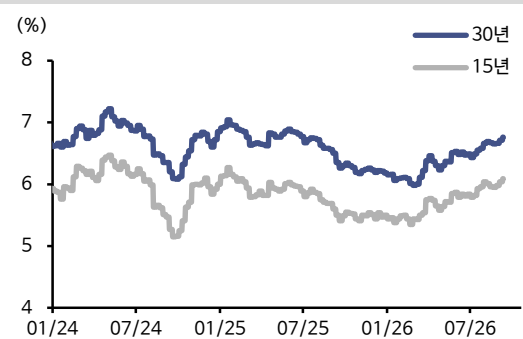
미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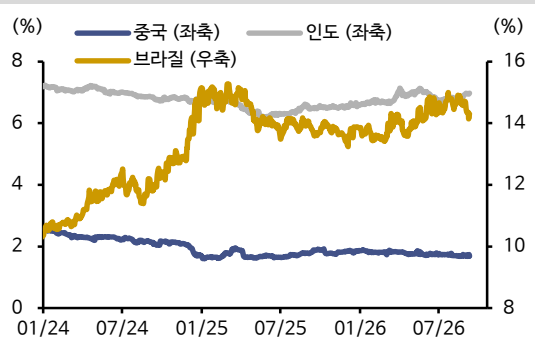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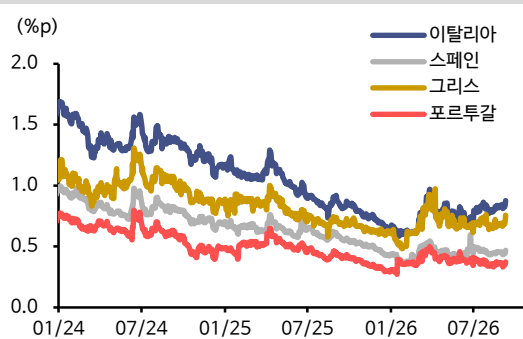
미국 모기지 금리



주요 신흥국 금리



독일-유럽 주변국 스프레드



자료: LSEG,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찬희, 고다영).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